



명태군 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국가산단 조사본부장 염태영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관련된 몸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 명태군 씨가 창원국가산단 조성
과 관련하여 심각한 국정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국민 여러분께 현 상황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명태군-이OO 보좌관(김영선 의원실) 카톡 내용 공개 (2023년 1월 3일)

명태군씨와 김영선 의원실의 이OO보좌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
지를 보시겠습니다.

“방금 국토부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는데 장관님께서 vip 업무보고에
산단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산단을 추진하겠다는 멘
트만 하셨습니다. 최종결과는 16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태군 씨와 김영선 의원실은 **창원국가산단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와 직접 소통을 하였으며, 국토부 장관이 VIP 업무보고에서 ‘지역균
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산단 추진을 언급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화에서 명태군 씨가 사실상 국가산단 지정을 사
전 조율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명태균의 측근 증언

2024년 10월 27일 명태균씨 측근 김모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여 투기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임원들과 직접 통화하며 사업 개입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사업 관련해서 돈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저희 본부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땅투기에 대해서 “산단 근처에 땅을 매입해서 큰 돈을 번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명태균이 옆에서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방산업체인 한화, 현대로템 등 기업체 임원들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며 방위산업 대기업 임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3. 대기업들과의 접촉 및 개입 정황

위의 증언에 대한 대기업 측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명태균과 신규고속철도 도입 사업에 대해 소통한 의혹이 있는 현대로템의 채상무는 명태균 씨가 경남 지역 대기업들과 접촉하였으며, 국가산단 추진과 관련하여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려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정 운영 지원이 아닌, 특정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국가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니다. 창원국가산단의 조성과 관련된 이 같은 의혹은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명태균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명태균 씨의 창원국가산단 관련 국정개입 및 부동산 투기, 대기업과의 유착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와 같은 국정농단과 비리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2025. 3. 14.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창원국가산단 조사본부장 염 태 영